

사회적 편견을 끌어안은 아름다운 봉사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전호성



※ 한국구라봉사회 : 1969~1974년 서울대 치대 교수 및 치과 개업의 · 치과 대학생,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치과봉사 활동. 1975~2003년 일본과 필리핀 · 태국 · 베트남의 한센인 정착촌에서 해외봉사 진행. 1975년~현재 매년 여름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 요양시설에서 치과 진료봉사 아산상 의료봉사상, 한국구라상, 5.16 민족상, 상허대상,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로대상 등 수상.

2017년 7월 전남 나주 호혜원에서 유동수 회장이 주민 송중근(83) 씨에게 처음 제작한 틀니를 끼워주고 있다.

나병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한센병’은 과거에는 ‘나병’(癩病)으로 불렸다. 치료약이 없을 때는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나병을 ‘천형’(天刑) 혹은 ‘문등병’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이라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가는 심경을 묘사한 시로 잘 알려진 한하운 시인도 한센병 환자였다.

아직도 법정전염병이지만 한센병은 근래에는 열대지방을 제외하곤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격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서 이제는 용어 자체에서 차별감을 주는 나병 대신 병원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으로 부른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하며, 전염력을 없앨 수 있지만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편견의 대상이었다.

48년 전인 1969년부터 한센인들을 격리 수용했던 소록도와 한센인 정착촌을 찾아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센인들의 입안에 손을 집어넣은 용기 있는 치과의사들이 있다. 다음은 ‘나환자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라봉사회’(救癩奉仕會)라고 이름 지은, 서울대 치대 출신의 ‘살아있는 천사들’ 이야기다.

“한국 의사가 소록도 한센인을 돌보자”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치대를 나와 모교에서 치과의사를 양성하던 유동수(84) 교수는 1968년 일본 오사카치과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됐다. 유 교수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오사카치대의 유마모토 요시오 교수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일본 치과의사들이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진료하는 사진들이 들려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소록도를 가려면 엄청난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일단 미군 군용기로 광주까지 간 뒤 어렵게 차량을 수배해서 비포장도로를 통해 고흥까지 갔고, 다시 배를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야 했다. 치과 진료장비는 일본 출발에 훨씬 앞서 배에 실어 소록도로 보냈다.

일본 교수의 말을 들으며 유 교수는 무척 부끄러웠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동포인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한 유 교수는 서울에 돌아온 이듬해부터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남들은 휴가를 떠나던 1969년 여름, 유 교수는 수련의 3명과 서울대 치대 본과 학생 4명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소록도에 들어갔다. 9일 동안 소록도에 머물면서 그들은 한센인 565



1960년대에 일본 치과의사들이 소록도에 찾아와 한센인을 진료하자 유동수 당시 서울대 치대교수가 제자들을 동원해 치과봉사를 하면서 구라봉사회가 시작됐다. 1969년 소록도에서 자리를 함께한 유동수 교수(오른쪽)와 오사카치대의 유마모토 요시오 교수.

명을 진료했고, 무료로 169개의 틀니(의치)를 제작해주었다. 이로써 사단법인 한국구라봉사회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한센균에 감염되면 피부조직과 함께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손이나 손가락이 잘리는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칫솔질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이 어려웠다. 1960~1970년대에는 한센병에 대해 유전병이나 전염병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심해서 한센인은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많은 한센인들이 치아를 상실한 채 지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로 한센병은 특히 잘 먹어야 하는 병이다. 한센인에게 서울대 치과병원 수준의 의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씹는 기쁨을 찾아주는 동시에 건강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었다.

유 교수는 소록도에서 진료한 첫 환자를 잊지 못한다. 코의 형체가 거의 사라지고 입에서 진물이 흐르던 양성환자였다. 그때는 소록도에 양성 한센인들이 많았다. ‘한센병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지만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결핵보다 덜 무서운 병이다’라는 의학 지식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기가 막히고 미치겠더라’는 것이 당시 유 교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빙 둘러선 수련의와 학생들이 긴장한 채 유 교수만 쳐다보았다. 눈을 질끈 감고 입 안에 손을 넣었더니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고, 그제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요즘 유 교수는 수술용 장갑도 끼지 않고 진료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봉사단, 특히 학생들에게 만에 하나라도 생길지 모를 감



한국구라봉사회는 2017년 7월 23~28일 나주 호혜원에서 치과의사와 기공사, 치과대학생 등 86명이 참여해 틀니 제작 45건, 틀니 수리 10건, 발치와 레진 충전 등 40건을 진행했다. 1970년대 국립소록도병원에서의 봉사활동 모습(왼쪽부터).

염에 대비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치과는 위낙 피와 침이 난무하는 분야여서 청결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록도에서 이를 뽑다가 피가 얼굴에라도 튀면 얼른 생리식염수로 닦아내도록 했다.

진료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회원도 있었다. 장갑 낀 치과의사의 손을 한센인이 자기도 모르게 깨물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고무장갑을 뚫고 손가락에 상처를 냈다. 난감한 표정으로 다친 손가락을 내려다보던 후배 의사에게 유 교수는 “넌 이제부터 소록도에서 살아라” 하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다. 물론, 그 의사는 지금 서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한센인의 경탄할 만한 삶의 의지

가족도 소록도에 가는 걸 반대했고, 주위의 눈총도 심했다. 유 교수가 소록도에서 돌아오면 부인은 현관에서 옷을 다 벗게 한 뒤 목욕하도록 했고, 옷은 세탁소로 보냈다. 유 교수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초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무심코 “우리 아빠, 소록도에 갔다”고 말하자 이 말을 전해들은 친구의 부모들이 유 교수를 한센인으로 생각하곤 아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유 교수의 미담이 몇 군데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 오해는 자연스레 풀렸다.

유 교수는 처음엔 한센인 치과봉사를 2~3년만 하면 끝날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유 교수의 착각이었다. 현재 전국에는 91곳의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는데, 구라봉사회가 경북 영일군 초곡

농장으로 봉사 갔을 때의 일이다. 한센인 노인 한 명이 사용하던 틀니를 가져왔는데, 틀니 바닥에 구라봉사회만 새겨 넣는 일련번호가 있었다. 유 교수가 “할머니, 이 틀니 누가 만들어줬어요?” 묻자 노인은 “제가 소록도에 살 때 선생님이 와서 만들어 준 것이잖아요?” 반문했다.

그때 유 교수는 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센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구라봉사회가 계속 봉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다행인 것은 취약지역에는 이가 빠진 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한센인 정착촌에는 구라봉사회 덕분에 이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고마워하는 한센인들을 볼 때마다 유 교수는 50년 가까운 고생이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보람을 느낀다.

서울 이태원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강태욱(65) 부회장은 본과 1학년이던 1972년부터 구라봉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강 부회장은 시력을 상실한 한센인, 사지 없이 몸통만 남은 체리어카에 실려 오던 한센인 등 험한 환자들을 많이 접했다. 손가락이 없는 한센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어서 탈·부착이 쉽도록 특수한 틀니를 만들어 주었다.

강 부회장이 한센인들의 의지에 감탄한 일이 있다. 한센인 중에는 악골(턱뼈)이 줄어들어서 틀니를 만들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모형 같은 틀니를 만들어 주었다. 놀라운 일은 한센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모형을 틀니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었다.

서울 풍납동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김규진(44) 총무이사는 “매년 여름 봉사를 다녀오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진다”면서 “개업하고 있는 치과 진료실보다 봉사현장에서 더 편하니 이상한 일”이라면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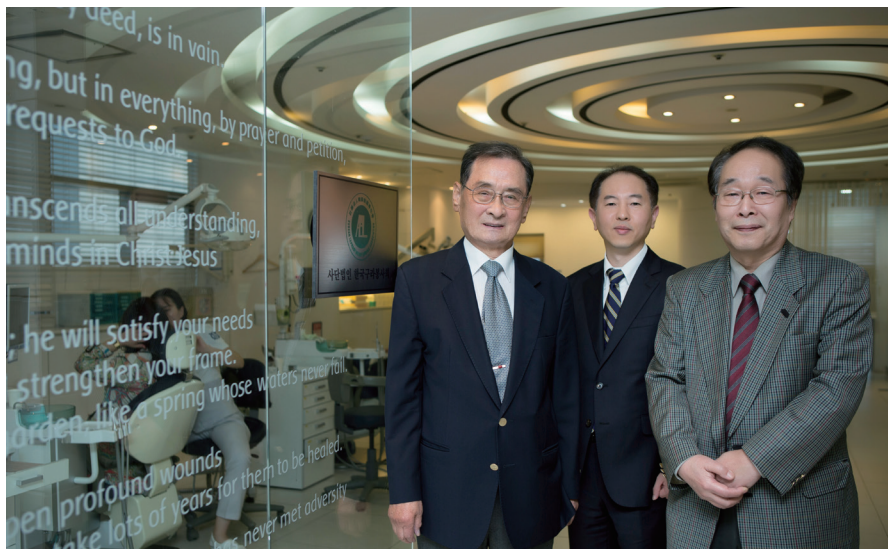
한센병이 사라질 때까지

구라봉사회는 소록도에 한센인이 줄어들자 1975년부터는 매년 여름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과 요양시설에서 30~60명을 대상으로 의치 제작 중심의 치과봉사를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남 나주의 호혜원에서 의치 제작과 수리, 아말감·레진 충전 등의 보존치료, 치주치료, 발치를 무료로 진행했다.

의치 제작의 경우 5월 5일과 6월 6일 이틀간의 사전진료에서 치과의사 3~4명이 틀니 제작을 위해 발치 등 치아를 정리한 후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누어 본을 뜨고 중간 결과물을 제작했다. 핵심 봉사활동인 7월에는 23~28일 6일 동안 의사 35명, 기공사 25명, 치과대학생 26명이 호혜원에 상주하면서 의치를 완성했고, 8월에는 5일과 15일 이틀간 의사 2명이 재방문하여 사후 마무리 진료를 진행했다.

이렇게 제작한 틀니 중에서 첫 번째 틀니는 유동수 교수가 한센인에게 끼워주는 것이 구라봉사회의 전통이다. 유 교수는 정년퇴임한 1999년까지 서울대 치대 구라봉사회의 지도교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구라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관상 회장 임기는 3년인데다가 유 교수의 나이도 있어서 스스로 그만두려고 해도 회원들의 만류로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첫 틀니는 유 교수님 몫’ ‘유 교수님은 구라봉사회의 영원한 회장’이라는 회원들의 일치된 생각에는 국내 한센인에 대한 치과봉사를 개척한 유 교수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있다. 2017년 호혜원에서 유 교수가 첫 틀니를 끼워준 주민은 송중근(83) 씨였다.

호혜원의 성만 이장은 “구라봉사회는 2017년까지 네 차례 우리 마을을 방문해 큰 도움을 주었다. 호혜원에는 160세대 270여 명이 거주하는데 구라봉사회로부터 무료 틀니 혜택을 받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회비로 운영되는 구라봉사회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회원의 치과병원에서 자리를 함께한 유동수 회장, 김규진 총무이사, 강태욱 부회장(왼쪽부터).

은 사람이 200여 명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치과 교수와 의사들이 아무나 찾아오지 않는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이를 치료해주어 바보들이거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헌신적인 봉사에 주민들은 ‘살아있는 천사들’이라고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춘계·추계 학기 중에는 주말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봉사를 격주로 시행하는 구라봉사회는 치과의사 155명과 기공사 5명 등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회비(연 20만 원)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서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유동수 회장은 “이번 아산상 의료봉사상으로 그동안의 우리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적지 않은 상금은 우리의 봉사활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1960~1970년대에 한센인들을 치료해주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나섰다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한센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구라봉사회는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국내의 한센인은 11,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한센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구라봉사회는 TF팀을 구성, 해외(북한 포함) 한센인 정착촌 및 국내 소외계층 진료봉사 등으로 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